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2017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



당신이 통일주인공

청소종합서비스센터 조현주 대표



통일돋보기

북한에도 연금 및 복지제도가 있다?



통일 웹툰
풍계리 지하자원탐험체험장과 통일설국열차



겨울 산과 바다가 맞닿은
평화의 땅,
강원도 양양



북한 별미
함경도식 겨울별미,
명태순대



[이벤트①] 제18기 전체회의 대표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민주평통365일
NUAC News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문재인 대통령 정상외교의 성과와 과제

정구연(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미 확대정상회담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방문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쉼새 없는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및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 연속적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균형외교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균형외교란 '지정학의 귀환'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전략적 내러티브들이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경쟁 가운데 한국의 북핵문제가 구조화되어가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환경은 강대국 정치의 항구적인 종속변수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은 지난 정부 기간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의 기로에 놓여왔으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균형외교를 통한 한국의 외교적 공간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내에서 한국이 교량국가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그 장기적인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과 11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협력체제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중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며 3불원칙 역시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주권 사항인 안보정책은 강대국의 압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내에 주지시키고자 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도발 억지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후 동남아 순방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아세안 공동체(People-centered ASEAN Community)"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중심 협력체제에서 벗어나 좀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람 중심 국민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비전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의 큰 골격 하에 내재되어있다.



▲ 한·ASEAN 정상회담



▲ EAS 정상회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번영의 축인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그리고 평화의 축인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다자협력의 관행이 미약한 아시아 역내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시킴과 동시에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구도를 완화시켜 협력의 제도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달성한 <한-인도네시아 공동비전선명> 채택과 <한-인도네시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의 외교성과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공동이익의 존재를 환기시켰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초석을 놓았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의 정상외교 결과를 토대로
한국외교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동남아순방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전략', 즉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영역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할 수 있었다. 요컨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는 강대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지켜내며 동시에 한국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 경쟁하는 국가들의 이익과 구상들을 이어주며 협력을 촉진하는 교량국가의 역할까지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의 정상외교 결과를 토대로 한국외교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일일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중견 국가로서 한국이 위와 같은 외교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량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네트워크파워를 제고하며, 아시아 역내 현존하는 다양한 소다자협력과 다자협력 간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한국의 국익을 고려할 때 어떻게 연결시켜 한국의 외교공간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은 소다자협력 및 다자협력에의 참여를 고려할 때 참여국의 범위와 협력 의제, 그리고 협력의 시간적 범위(time horizon)와 결과물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내에 매우 상이한 국가 간 조합의 소다자협력과 다자협력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둘째, 교량국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역시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견 국가로서 자신의 역량보다도 큰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는데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들을 이어주는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즉, 협력 촉진자, 혹은 단순히 매개자 혹은 연결국가(nodal power) 등 상이한 수준에서의 교량 역할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협력 영역과 협력의 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한국이 '교량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들 역할들 간의 우선순위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 첫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다
또한 한국이 교량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야할 것이다*

셋째, 어떠한 영역에서의 교량국가 역할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 정부로부터 다자협력의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해왔다. 이미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야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가 외교비전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 정부의 외교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공진화 가능성이 다대한 가운데 양국의 군사안보경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국의 현실주의적 외교정책기조로 인해 아시아 역내 공공재 제공을 어떠한 식으로 분담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강대국의 시선이 분산될, 혹은 규칙기반 질서가 부재하게 될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 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며 한국이 교량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세안 +3 정상회의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연금 및 복지제도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도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노후 연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공로자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등이 그것인데요. 현재는 사라졌지만 북한의 고용보험은 남한보다 49년 앞선 1946년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탁아소 등의 보육복지가 꽤 체계적이라고 하는데요.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복지

남한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북한은 공로자 및 군인 연금이 특화



구분	남한	북한
도입시기	1952년	1946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로자연금(혁명투사, 애국열사, 국기훈장 1급), 연로자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경제 특구 및 외국 기업 고용보험, 폐질연휴금, 노동능력상실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자연금



보건복지

남한은 지역 구분없는 ‘공공보건의료제’
북한은 도시별 ‘의사담당구역제’



구분	남한	북한
복지제도	건강보험제(직장 50%, 지역 50%)	무상치료제
특징	공공보건의료제(지역구분 없음)	의사담당구역제(도시, 농촌으로 구분)
병원수	총 53,342 개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기관이 시·도별 분포	약 100여 개소 직할시·도별 대학병원, 중앙병원, 시·군 지역 인민병원, 리·동지구별 진료소, 리·동 종합진료소로 분포
전달체계	환자가 병원 선택	1차 진료기관(리병원·진료소)→2차 진료기관(시·도병원, 결핵, 감염 요양소)→3 차 진료기관(도·중앙병원, 결핵, 감염 병원)→4차 진료기관(평양중앙급병원)



아동복지

남한 어린이집·유치원 4만9천5백여 개소
북한 탁아소·유치원 5만여 개소



남한		북한	
어린이집	6세 미만 아동 (4만1천여 개소)	탁아소*	만 3세 아동 (3만7천여 개소)
	보육료 월 12~60만원 연령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유치원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8천5백여 개소)	유치원	만 4세 이상 취학 전 아동 (1만3천여 개소)
	보육료 월 22~33만원 연령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역 아동센터	만 18세 미만 4,107개소 (106,668명 2016년 기준)	육아원	만 4세 미만 고아 14개소 (3천여 명 추정 2015년 기준)
	지역사회 아동 보호교육 시설,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숙식 제공 및 교육
시설보호 아동센터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281개소 (4,592명 2016년 기준)	애육원 및 초중등학교	만 4~18세 이하 고아 12개소 (8천여 명 추정 2015년 기준)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		숙식 제공 및 교육

*북한에는 하루, 한 주, 한 달 기준으로 아이를 맡기는 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가 있다. '일탁아소'는 작업반 또는 기초행정 단위별, '주탁아소'는 시·군 단위와 300명 규모의 기업에서 운영된다. '월탁아소'는 평양에서만 운영되며 아이를 한 달 동안 맡기는 형태이다.



장애인복지

남한 장애인 인구의 5%, 5천5백여 개 시설
북한 장애인 인구의 4.8%, 3백10여개 시설



구분	남한	북한
장애인 인구	251만 명 전체 인구의 약 5%(2016년 기준)	약 120만 명 전체 인구의 4.8%(2015년 기준)
담당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총괄
지원 내용 및 특징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활동 보조, 고용 및 직업 재활,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 등	의료비 지원, 교육, 문화생활 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 등 (*상이군인에게만 높은 복지 급여 제공)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	약 5,442개	약 304개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보건 기관 등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정신보건 기관 등
특수학교	167개소	약 11개소

※ 참고자료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2013)> 이현경, 통일문제연구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2016)> 이철수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의 쟁점과 과제>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e-나라지표 및 통계청 요보호아동 현황

국제푸른나무 2011년 통계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트럼프, 北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처리...대북정책 안 바뀌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75일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보기](#)



트럼프 “압도적 힘 있지만, 사용하는 일 없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보기](#)



백악관 “북핵 완성돼도 미군 철수 없다”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북핵이 완성돼도 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더보기](#)



북한, JSA 귀순 병사에 총격... 폐·북부에 6~7발 맞아

북한군인 1명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우리 측으로 귀순해 왔다. 북한군 판문점 경비대는 군인의 귀순을 막기 위해 6~7발의 총격을 가했다.

[+더보기](#)



북·러, 평양서 나진-하산 경제협력 방안 논의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과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보기](#)



“평창동계올림픽 北 참가 가능성 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문제 삼아 불참 여부를 검토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더보기](#)



日 언론 “北, 제재국면서 핵·미사일개발 배경엔 아프리카 있다”

유엔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소한 15개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 동상이나 기념비를 수출·건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보기](#)



北장마당 암호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요’는 무슨 뜻?

장마당 상인들은 손님이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요’하고 물으면 배터리나 쌀 등 일반 물품들을 파는 카운터 아래에서 USB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더보기](#)

세계일보

“때 되면 北 적십자사 만나 이산가족 문제 풀 것”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주위 여건이 허락되고 이때라는 판단이 들면 평양에 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보기](#)



김정은, 군 서열 1위 황병서 내쳤다

2034년부터는 우리 인구 감소와 북한의 저출산·고령화 등 여파로 ‘통일 한국’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더보기](#)



김정은, 군 서열 1위 황병서 내쳤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 국장이 처벌당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더보기](#)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 선군→선당 무게중심 이동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용해를 시켜 황병서와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처벌하는 등 아버지 세대 인물인 군부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더보기](#)

경향신문

“북한, 결국 미국과 대화 나설 것… 문제는 타이밍”

리후난(李虎男)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자력 경쟁을 하겠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연말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보기](#)



몰래 원유 나르던 北선박에 “거래 금지” 해상 물로도 죄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돈을 끊기 위해 북한 선박에 첫 제재에 나섰다. 돈세탁과 원자로 부품 반입에 관여한 중국인 등 중국 기업 4곳도 제재 대상에 올려졌다.

[+더보기](#)

북한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결핵·B형 간염·기생충 등 각종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같은 감염병이 북한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잠잠해진 北·사드 해빙, 소비자심리 7년 만에 최고

중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과의 합작, 합자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28일 통보했다.

[+더보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남북 단일팀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요!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팀 감독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북 최초로 결성된
단일팀 **‘코리아’**가
당시 9연패에 도전했던 중국을
3대 2로 꺾고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남북이 아닌 하나 된 남북이
'한반도 깃발'을 들고 입장해
'아리랑'을 승전가로 불렀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 현정화, 라분희, 유순복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



현정화 감독은 지금도
그날의 감동이 잊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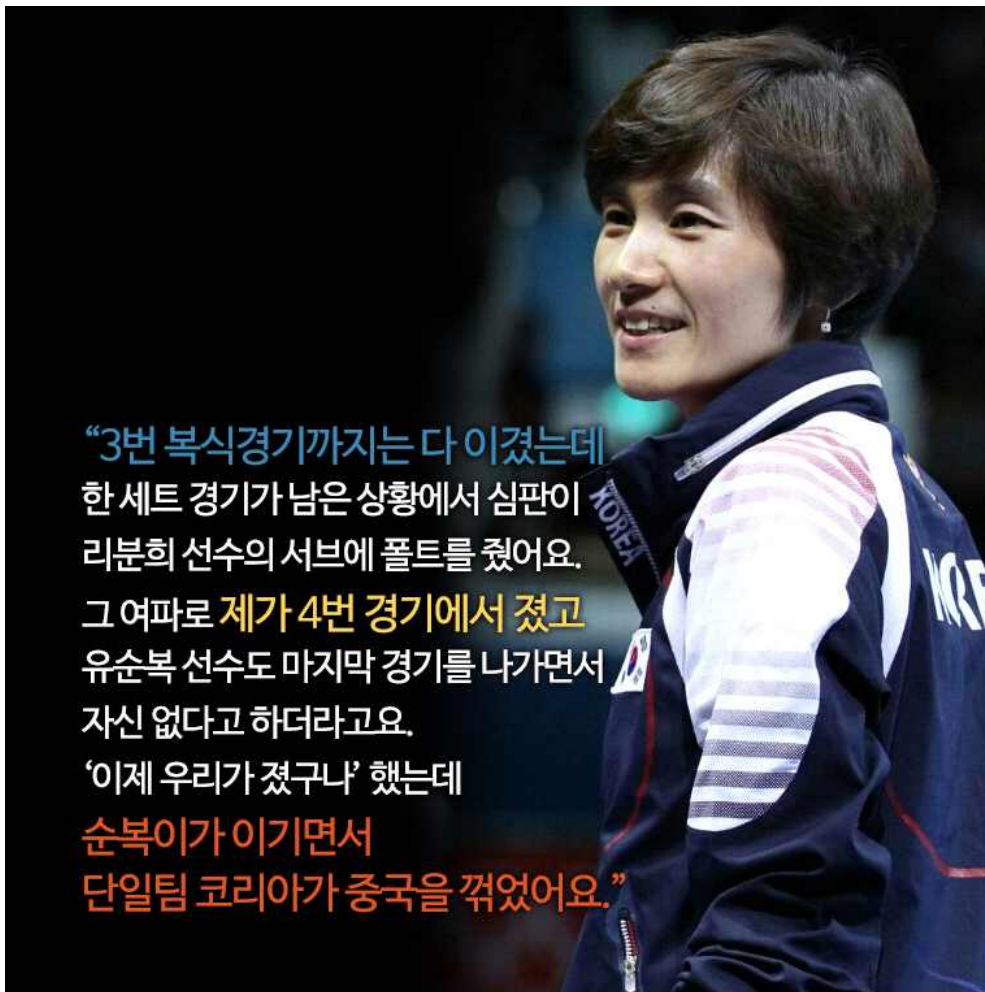
당시 1~4위를 차지하던 중국을
단일팀 **'코리아'**가 꺾는다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길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남북한 선수들 모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잘해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요.”



하지만 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심판의 **억울한 판정**에
모두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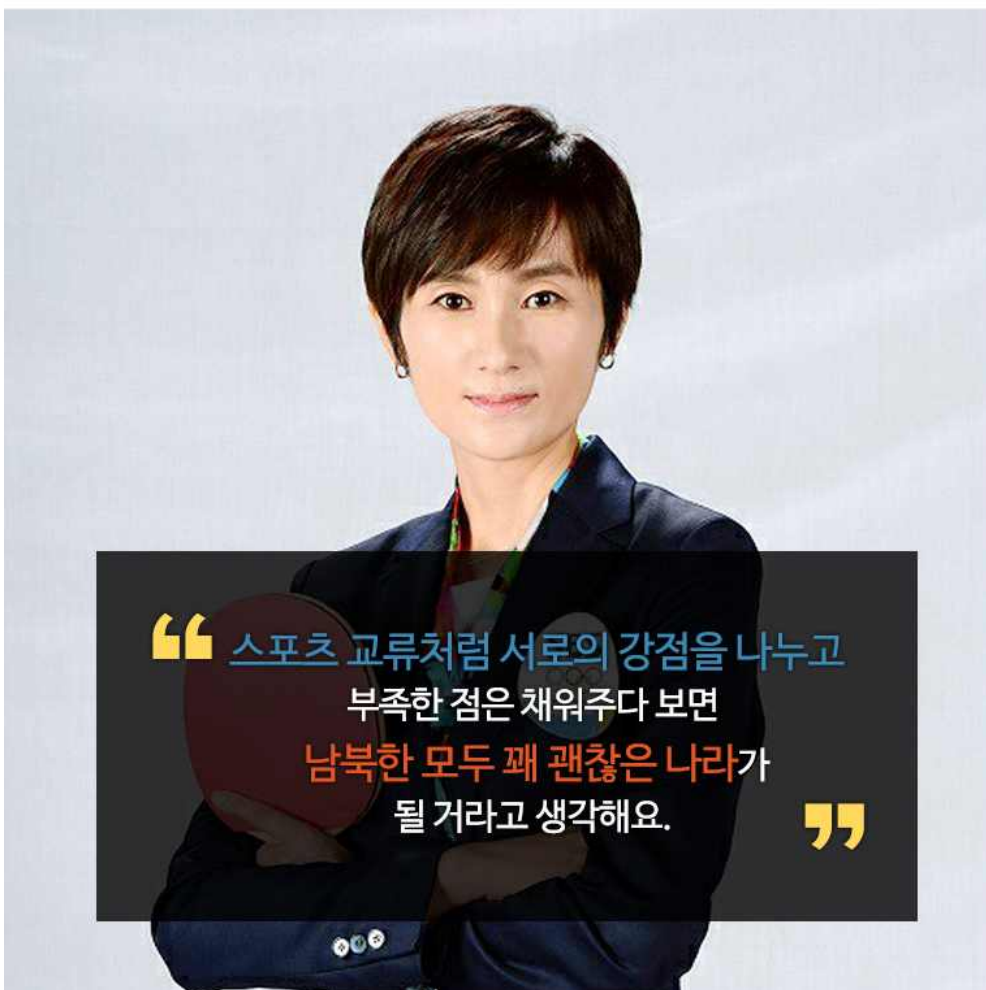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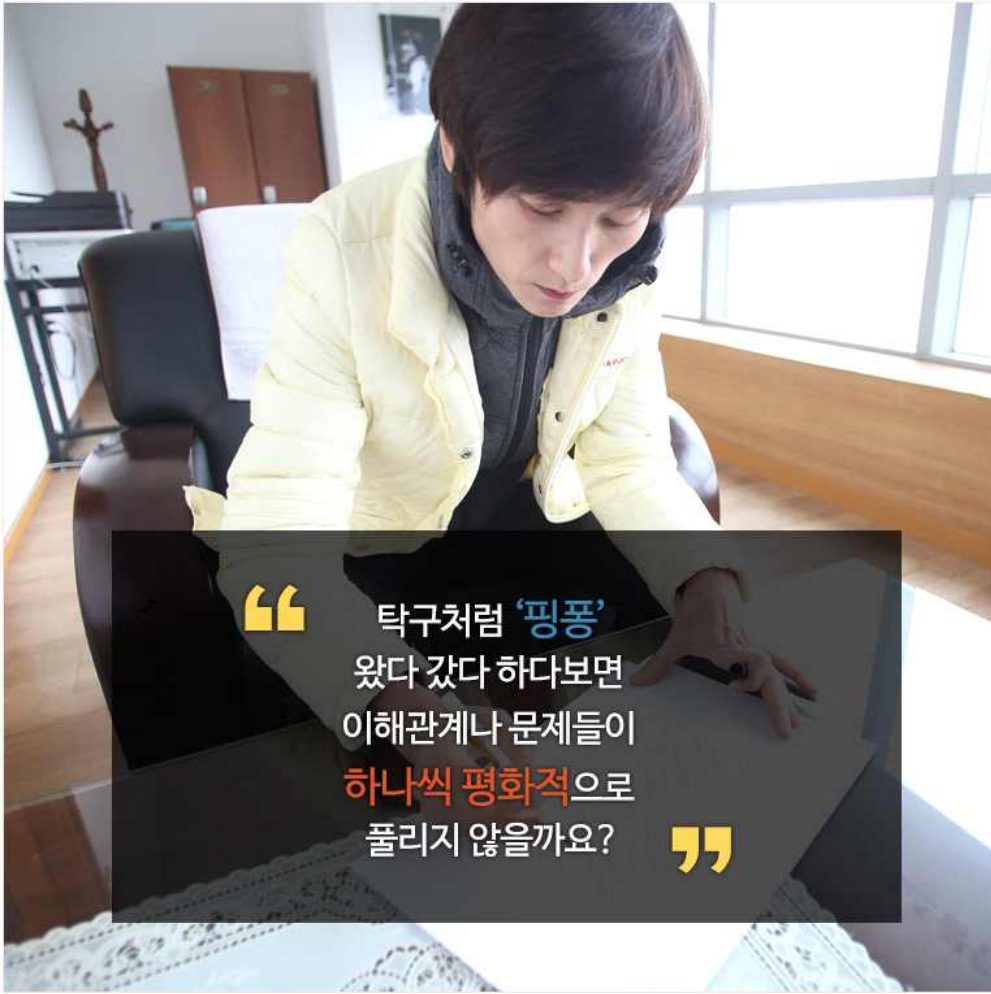
“3번 복식경기까지는 다 이겼는데
한 세트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심판이
리분희 선수의 서브에 폴트를 줬어요.
그 여파로 제가 4번 경기에서 졌고
유순복 선수도 마지막 경기를 나가면서
자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졌구나’ 했는데
순복이가 이기면서
단일팀 코리아가 중국을 꺾었어요.”



현정화 감독에 따르면
북한 선수들은 선이 굵고 공격력이 강하고
남한 선수들은 경기 응용력과
운영 실력이 좋다고 합니다.

탁구는 스피드와 기술
머리싸움과 심리전이 다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남북의 합이 꽤 잘 맞는다고 하네요.





“

탁구처럼 ‘핑퐁’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해관계나 문제들이
하나씩 평화적으로
풀리지 않을까요?

”

북한에 1인 가구와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는 이유

이준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2104년 여름 평양에서 유행한 패션 스타일

북한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 말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해석범위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논리가 된다.

체제와 현실이 모순된 '자력갱생 사회'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을 개인의 실생활에 구현하지 못해 배급제가 무너졌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와 동사로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었다. 주체사상을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생존과 직결된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자기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자력갱생' 논리는 결국 '알아서 살아가라'는 얘기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며 스스로 주체사상의 모순을 드러낸다. 우리 안에 갇혀 주는 풀만 먹고 살던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박차고 나와 주체사상이 가르쳐준 '자기운명 개척의 길'로 과감히 들어서는 모습은 실로 감탄할 일이다.

'1인가구'는 북한 젊은이들의 생존 전략

북한은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조직'이라는 수단으로 억제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자유 없는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만큼은 조직을 이용해 조직 책임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이 지시한 공장, 기업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병원에서 노동취약자로 진단서를 만들어 사회편의봉사시설기관으로 옮긴다. 여기서는 단위 책임자로부터 타 지역에 나가 돈을 벌어 북한 원화가치로 월 5~10만 원을 직장에 바치기로 약속한다.



▲ 평양 중산층 가정의 집 내부

공업도시나 농업지구에서 나가 월세 방을 얻어 살며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힘에 걸맞는 일을 하고 여자들은 의류장사를 하다가 급기야 성매매를 하는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해당 지역 공안 기관으로부터 숙박검열을 받게 된다. 이때는 집주인과 친인척으로 둔갑해 집주인과 임차인의 공동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묘한 대안도 갖고 있다.

북한 젊은이들은 창조성을 운운하며 덩치 큰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 작은 조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곳에서 번 돈의 일부를 바치고 자기 삶도 유지하는 식이다. 워낙 사회적 통제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까닭에 독립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혼자 사는 늙은 집주인을 찾아 방을 얻고 그에게 한 달에 쌀 20kg을 월세로 지급하며 산다. 배급제가 무너지고 제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버텨야 하는 조건과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김정은, 이설주 옷을 만들어 파는 북한 패션디자이너



▲ 북한 헤어, 패션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는 김정은, 이설주 부부

북한에는 옷공장들이 많다. 대개 중국에서 주문을 받아 가공품을 수출하는 봉제공들에게 월 20kg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가족이 먹고살기엔 턱없이 부족해 사직을 하고,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의류를 제작해 돈을 번다. 이런 개인 의류 제작자들은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입은 옷을 모방 디자인해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여기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간부와 그 부인들이다. 지도자와 그의 부인이 입은 옷을 모방해 만들면 존엄 도전에 걸려 숙청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와 정 반대가 된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김정은이나 이설주는 자기가 입은 옷이 인민들 사이에서 호평이 되는 것을 마치 자기 사상만이 아니라 입은 옷까지 숭배된다는 착각에 빠져 즐거워하는 것이다. 2,500만이 같은 옷을 입어도 진품은 자기들이 입은 단 두 벌 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욱 쾌감을 느낀다.

퇴근 후 집에서 돈 버는 '개인 미용소'

여성들은 머리를 꾸미는데 남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 북한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평양 창광원이 대표적인 미용실인데, 창광원은 1982년 김일성주석의 생일 70주년을 기념해 수영, 이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최대 봉사지사로 신설된 곳이다. 하지만 창광원은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어야 하는 사람이나 소개로 오는 손님이 우선시 된다.

때문에 평양 평천 지역 새마을동에 있는 상업전문학교 미용과를 졸업하고 창광원이나 구역, 동 지구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들도 많다. 중앙기관인 인민봉사총국이 배치한 곳에서 일하면 월급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해 기술을 이용한 불법장사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자기의 미용기술을 자신하는 미용사들이 창광원 미용실이나 지역 미용실에서 보수 없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퇴근 후 집에서 미용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고,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미용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 없는 평양에도 미용을 잘하는 여성들의 입소문은 거의 마하속도가 되어 퍼진다. 그래서 개인 미용사들은 한 명당 30~50볼(3~5만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기는 고급 직업이 되고 있다. 남성은 역시 개인 이발사를 선호하며, 최근에는 여성들을 남자 이발사로 떠미는 사회적 풍조도 일어나고 있다. 단, 외모에 대한 자신 있는 여성들만이 이발사로 고용된다.

한편 이발사들은 외국문화에 젖은 청년들이 요구한 자본주의나라 헤어스타일을 해주었다가 자본주의 선전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먼저 한 헤어스타일은 돈을 많이 버는 지름길이 된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도 많은 개인 이발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역시 생존과 부의 지름길을 선호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체제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북한당국이 이런 현실을 인지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한다. 국가를 위해 아무리 일하고 봉사해도 불법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체감한 주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당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핵의 무게에 짓눌려 생존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미는 도움의 손을 잡는 것이다.



▲ 북한 남성의 평범한 헤어스타일들

실력으로 승부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다

‘광주 맥가이버’ 청소종합서비스센터 조현주 대표

이른 아침 한 남자가 식당 환풍기들을 뜯어내고 있다. ‘광주 맥가이버’로 불리는 탈북민 조현주 씨다. 현주 씨는 보일러, 에어컨, 환풍기, 세탁기, 개수대, 화장실 등 무엇이든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청소 기술 전문가’다. 장비도 많지 않다. 기기를 분리할 드라이버와 청소도구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돈 만 원에 울고 웃은 ‘남한생활 정착기’

현주 씨는 스물다섯에 한국에 왔다. 생계를 위해 중국에서 6년간 일했지만 불법체류자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까닭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막막함을 느꼈다. 하나원을 나와 임대아파트로 들어간 날, 브로커비를 갚고 나니 통장에 17만 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식사 한 끼를 해결하니 몇 만 원이 금세 사라졌다.

현주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취직을 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안전대를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기본 급여 외 하루 두 끼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된다니 이만한 일도 없겠다 싶었다. 덕분에 당장 필요했던 임대아파트 관리비 보증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 출장 전 도구를 챙기는 조현주 대표



▲ 청소종합서비스센터 차량

현장에서는 지금의 현주 씨를 있게 한 고마운 분들을 만났다. 같이 일했던 과장님 몇 분이 현주 씨가 일하는 동안 밥값을 돌아가며 계산해주는가 하면 “젊은 놈이 이런 일 하지 말고 공부해서 취직하라”며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다. 죄송한 마음에 현주 씨가 돈을 꺼내려 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때 과장님들과 부장님, 이사님이 돈을 모아서 저희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주시기도 하고, 한 분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셨어요. 돈 아껴서 공부하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게 그 분들 덕분이죠.”

도배에서 로프공, 로프공에서 청소기술전문가

어른들의 권유 끝에 현주 씨는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땀다. 이후 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 회사생활을 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됐다. 당시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수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생활비만 충당하기에 빠듯했다. 이에 현주 씨는 일당을 받은 일용직 도배 일을 시작했다.

도배일을 하는 동안 그는 빌딩 외벽을 닦는 로프공 일도 배우게 됐다. 위험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천천히 로프 타는 법을 익히면서 무려 3년 동안 아파트 외장미화와 구조물 설치, 건물 외벽청소를 하게 됐다. 기술 하나를 더 배우고 나니 현주 씨는 욕심이 생겼다. 청소관련 기술은 뭐든 배워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현주 씨는 알음알음으로 찾아낸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고난도 기술을 배웠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대표님을 수시로 찾아갔어요. 밥도 먹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노하우를 얻는 거죠. 그렇게 친분이 생기니까 언제부턴가는 일감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관련 기술자 분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응용하면서 터득하고 있어요.”

현주 씨가 적극적으로 일을 배운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 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되고 싶었고, 둘째는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경력, 학벌, 나이, 출신, 자격증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길 바라서였다.

이에 현주 씨는 2016년 여름부터 사업자로 등록해 친환경케어 청소전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 식당 환풍기 청소중인 조현주 대표



▲ 환풍기 청소 전



▲ 환풍기 청소 후

조현주 청소종합서비스센터는 지금 월동준비 중

회사 대표가 된 뒤에는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 아침에 잠깐 사무실을 둘러 스케줄을 체크하고 상담전화를 받으며 견적을 내고 그날그날 잡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보일러 청소 일이 제일 많다. 집집마다 월동준비가 한창인데 보일러 배관에 녹물이 쌓이면 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약한 부분이 터지는 이유다. 현주 씨는 학교나 병원, 숙박업소 같은 상업공간이나 일반 가정집의 보일러 청소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바닥을 뜯어내지 않고도 보일러를 청소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보통 분기별로 요청 오는 작업이 달라요. 겨울에는 보일러, 봄여름에는 에어컨, 휴가철에는 업소용 후두 청소 시즌이 돌아오죠. 이것 말고도 세탁기나 개수대, 화장실, 건물할 것 없이 못 하는 것 빼고는 다 해요(웃음).”



▲ 세탁기 청소 중인 조현주 대표



▲ 세탁기 청소 전



▲ 세탁기 청소 후

현주 씨는 프리랜서 기술자들과 일반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하고 있다. 기술자 한 명에 보조 직원 한두 명이 한 팀으로 일하는 식이다. 임금은 오로지 ‘실력’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난날의 설움을 잊지 않고 학벌, 경력, 자격증과 상관없이 실력과 성실만을 보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을 하다보면 기사가 얼마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생기기도, 반대로 끊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과 사람, 남과 북을 잇는 ‘커뮤니케이터’

일을 하면서는 ‘커뮤니케이터’라는 꿈도 갖게 됐다. 처음엔 인맥이 없다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늘 만난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회사 대표로서 영업을 다녀야 하기도 하고, 기술자와 고객 사이에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다 보니 그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다. 때문에 일과 탈북민에 관해서는 만큼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

“탈북민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인지,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주고, 또 이곳의 절차를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이 된 뒤에는 문화나 법적인 차이로 생기는 문제도 많을 거예요. 그때는 또 제가 할 역할이 있겠죠?”

얼마 전에는 척추장애인협회에 적은 예산으로 침대 매트리스 케어와 화장실 살균 청소를 해주는 일을 맡기도 했다. 별도 업체와 협약을 맺고 최소 금액으로 복지관과 경찰서 등을 청소해주는 일들도 추진 중이다.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지만 본인 수입을 줄여 진행하는 일이라고 한다.

현주 씨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이 사랑’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산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노래처럼 하시던 말씀인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성실하면 그게 사랑이고 신뢰를 주는 일이라는 의미란다.

이곳에서 자리 잡으면 현주 씨는 지역을 한 곳씩 늘려갈 생각이다.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함께 할 청소종합서비스센터를 만들고 싶어하다. 아마도 그 날은 머지않은 듯하다. 현주 씨는 지금도 오늘 만난 사람과 오늘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 사진_강문희〉

풍계리 지하자원탐험 체험장과 통일설국열차

글. 김혜진/그림. 이택중

풍계리 '지하자원탐험 연구소' 앞

어머~.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네?

지하자원탐험 연구소



핵실험장이 '지하자원
체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누?

이곳은 지하 1,000미터 지점입니다. 옆에 보이는 지질 단면은 크게
5가지인데요, 맨 위부터 석탄, 셰일, 사암, 석회암, 슬레이트입니다.





헤이~. 하우 머치 언더그라운드 리소스즈?

금? 어디??

네, 통일 한국의 북쪽 지역에는 약 300여 종, 7천여 조 가치의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연탄, 금, 동, 아연, 철, 망간, 니켈, 석회석 등이 풍부하죠.

백두산 천지 리조트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합작으로 완성한 이곳 동창리 우주 비행장은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민간인 우주비행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이제는 우주비행장이 됐대네요.

에비야~. 저기가 예전 탄도 미사일 발사했던 서해 발사장이냐?

평안북도 동창리 우주비행장 현장





'설국열차' 영화가 대단하긴 했나보네.

통일한국으로 전 대륙이 연결됐으니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설정이 기막히게 매칭됐잖아.



이곳은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 '울란우데'입니다. 해석하면 '붉은 강'이라는 뜻인데요. 충분히 관광하시고 저녁 8시에 다시 열차에 탑승해주세요.

내

우리는 울란우데 시장에 가자꾸나.

할아버지, 저는 저 새빨간 보르쉬 먹을래요.

겨울 산과 바다가 맞닿은 평화의 땅, 강원도 양양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김남조 <겨울바다>



파도가 치면 바다는 처음 만난 새로운 것이 된다. 아직 무엇이라 부르기 전, 사유 이전의 원시의 시공. 그리하여 가장 오래되었으나 매번 새로운 곳이 바다다. 양양땅에 한때 38선이 그어지고 포화의 역사를 치러낸 그 자취는 아직 남아 있으나 물결이 물결과 섞여 새로워지듯 사람들은 그 자리를, 평화로운 삶으로 채워가며 사랑하였다.

어제까지 수면 아래 꿈꾸고 있던 태양이 아침마다 수평선 밖으로 힘차게 오르는 곳. 빛은 사방에 넘실거리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평안하다.

애국가 소나무 뒤로 펼쳐지는 푸른 해원, 하조대



애국가 화면에 등장하는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거친 해풍에도 그 기상은 오히려 우뚝하여, '하조대 애국송'으로 불린다. 애국송은 보호수로 수령이 200년이 넘었는데, 바람에 비록 구부러졌으나 단단한 기세가 마치 우국충정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듯 노련한 장수의 모습이다.

그 곁에는 '하조대'라는 정자가 있는데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개혁가였던 하륜과 조준이 만년을 보냈다고 하여 그 성씨를 한 글자씩 가져왔다고 한다. 조선 2대 왕인 정종이 세운 정자로 이후 여러 번 개축하였지만, 그 풍모는 1960년대에 지어진 현재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동쪽 끝 바다에 왕이 세운 정자가 있다는 점이 이채로운데 이 두 인물이 당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듯하다. 하륜과 조준은 각각 정치적 행보와 운명이 달랐으나, 조선이라는 국가의 큰 판을 짜고 법률과 직제 등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수백 년을 이어갈 왕실의 주춧돌을 세운 킹메이커들이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하더라도 꿈이 꿈에 머무르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할 터, 정자가 앉아 있는 사방의 기운도 예사롭지 않다.



▲ '애국가 소나무'로 알려진 애국송



▲ 하조대에서 바라 본 푸른 동해

하조대 정자에서 돌아 나와 다른 갈래 길로 들어가면 새하얀 등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일출은 장엄하기로 손에 꼽힌다. 일출뿐만 아니라 해질 무렵 땅거미가 지면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 또한 장관이라 한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대는 4초에 한 번이나 6초에 두 번, 깜빡인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누가 길 좀 알려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 문득 보이는 그 불빛이 얼마나 반가울까. '하조대에 온 사람은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바다 앞에 서니 머리와 가슴이 열린다. 낯선 내가 되어, 뒤편에 놓고 온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바다. 어쩌면 이곳은 지도의 동쪽 해안선 어딘가가 아니라 세상이 태어나는 중심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이 푸른 절벽까지 밀려와 바다를 향해 가슴을 열고 간구하는 소망들은 무엇일까.



▲ 하조대 정자의 전경



▲ 일출 명소로 꼽히는 하조대 등대



38선을 넘어 해안을 걷는 평화로운 순례길, 38선 휴게소부터 남해항까지

바다를 이어지는 7번 국도를 따라가는 길은 사실 정해진 경로 안내 없이도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길을 따라가다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또 걷고 싶으면 걸으면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끝도 없이 벅찬 풍경이 이어진다. 단순히 아름답다기보다는 현실을 가리고 있던 막이 거두어지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하는 길이다. 그저 오롯한 자연 앞에서는 대화도 있고 생각에 잠겨 순례자가 된다. 그렇게 끝도 없이 오래도록 걷고 걷는다.

38선 휴게소는 기사문항 근처에 있다. 휴게소 앞에는 한국전쟁 이전 그어졌던 38선의 흔적을 남긴 표지석이 있지만, 주변의 풍경은 그저 고요한 동해안의 해변 풍경이다. 이곳 휴게소는 자그마한 시골 슈퍼 같은 정취를 풍기는데, 7번 국도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 박자 쉬어갈 만한 자그마한 쉼터 기능을 한다. 38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누리지 못했을 평화다. 함부로 선을 그어 나뉘었던 아픈 역사의 장소는 이제 한없이 너그러운 쉼 곳이 되었다. 쉬어가려는 자는 누구든 언제까지고 쉬어갈 수 있다.



▲ 38선 휴게소 앞의 표지석



▲ 휴휴암 앞 너럭바위 '연화대' (원안에는 휴휴암 앞바다의 황어떼)

길을 따라 가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명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휴휴암(休休庵)은 쉬고(休) 또 쉬라는(休)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진리는 돌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불이문(不二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속세의 먼지를 털고 또 다른 존재가 된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갯바위 쪽으로 나가면 널따란 너럭바위 연화대가 펼쳐져 있다. 너럭바위 앞 바다엔 우럭과 황어 같은 물고기 수천 마리가 모여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서 방생한 어린 물고기가 자라 큰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황어는 양양의 또 다른 명물인 연어처럼 다 자라면 처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유성 물고기라 한다. 어쩌면 이곳은 그들이 기억하는 고향이고 근원인 셈이다. 늘 그리워하는 마음, 그 그리움의 힘으로 우리는 천천히 파도처럼 스며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휴휴암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이름난 남해항이 있다. '남쪽 바다'라는 뜻의 남해(南涯)처럼 동해안임에도 남쪽을 향해 항구가 자리 잡고 있는, 항아리형 항구가 마치 어머니의 품 같다. 이곳은 영화 <고래사냥>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 마지막 내용이 평생을 바람처럼 떠돌던 춘자가 고향의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으로, 고래는 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실연한 청년, 가진 것 없는 거지 왕초, 병어리 춘자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이 바다에 도착해 반짝이는 해변가를 달리던 장면처럼 이 바다에서 청춘의 꿈이 되살아날 것 같다.



▲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이름난 남해항

한반도의 중추 태백산맥이 뻗은 하늘 끝자리, 한계령(오색령)



바다를 향해 무한히 열려졌던 사유는 더욱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욱 스스로 흑독해져 마침내 사유의 끝에 다다른다. 윤동주의 시 <간>에서처럼 내부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펴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한다.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유의 끝에 마침내 하늘과 달은 설악산에 다다른다. 외롭게 스스로를 다져가는 겨울 설악산의 풍모는 그리하여 여윈 신령의 모습이다. 한반도의 중추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다는 설악산 대청봉을 기준으로 동쪽 바다 방향은 외설악, 서쪽의 육지 방향은 내설악이라 하고, 한계령(오색령) 이남의 오색지구는 남설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남설악 지역에서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 사이에 있는 1,004m 고개를 한계령, 또는 오색령이라 부른다. ‘오색’이라는 이름은 특 쓰는 탄산 맛으로 이름난 오색약수터 부근에 오래전 오색석사라는 사찰에 다섯 가지 색깔 꽃이 피는 오색화라는 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오색약수터에서 3km 정도 올라가면, 오색온천이 있는데, 수온이 35~38도 정도 되는 알칼리성의 온천수는 신경통에 효험이 있고 피부에도 좋아 예로부터 미인 온천으로 불렸다고 한다. 오색약수터 부근에는 누구나 앉아 지친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족욕탕도 있다. 기운을 북돋고 건강을 보하는 약수와 온천은 세상을 살아내느라 몸과 마음에 쌓아두었던 독을 정화해준다.



▲ 특 쓰는 탄산수, 오색약수



▲오색온천 노천 족욕탕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한계령〉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본디 정덕수의 〈한계령에서〉라는 시 구절을 다듬어 만들었다. 이 〈한계령〉이라는 노래는 다시 양귀자의 소설 〈한계령〉을 비롯해 이후 수많은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반복되며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봉우리를 향해 힘겹게 올라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다는 것. 그저 설악산의 고개 중 하나였던 지명은 이제 만인의 사랑을 받는 철학적인 단어로 거듭났다. 어쩌면 ‘한계령’은 인생의 회한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위안과 격려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산을 오르듯, 쉬지 않고 땀 흘려온 수고로운 인생들에 대한 따뜻한 한마디가 아닐까. 지금 그대는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괜찮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글_김혜진, 사진_김규성〉

함경도식 겨울 별미, 명태순대

함경도에서는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면 '명태순대'를 만들어 먹는다. 명태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A, 필수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체온 유지와 피로 회복에 좋다. 명태 속에 갇은 채소와 명태곤이, 밥을 넣어 숙성시켜 찌 먹는 겨울 별미 '명태순대'를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명태 2마리, 배추 100g, 숙주 200g, 돼지고기 200g, 밥 300g
양념장: 소금 10g, 후춧가루 1g, 된장 30g, 명태알 또는 곤이

Step 1



명태는 배를 가리지 않고 아가미를 통해 내장과 뼈를 뽑아낸 다음 소금, 후추를 쳐둔다.

Step 2



다진 돼지고기, 썬 배추, 숙주, 밥에 양념장을 넣은 후 프라이팬에 볶아 순대소를 만든다.

Step 3



명태 속에 완성된 소를 꼭꼭 눌러 담는다.

Step 4



완성된 명태순대를 냄비에 넣고 돼지고기와 명태살이 익을 때까지 15~20분간 푹 찐다.



요리 Tip.

명태순대는 뼈만 뽑아내 소를 채우는 방법과, 명태살을 발라내 소로 만들어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는 미리 볶아 넣어야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



요리연구가_백혜경

버릴 것 하나 없는 '명태'

명태(明太)는 명태 산지인 명천의 '명'자와 어주의 성인 '태'자를 따 붙인 이름이다. 명태는 생것을 '생태' 얼린 것을 '동태' 말린 것을 '건태' 또는 '복어'라고 부르는데, 이밖에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해 말린 것을 '코다리',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것을 '황태'라고 한다. 명태는 부위에 따라 살코기와 곤이는 국과 찌개에, 알과 창자는 것갈에 쓰이며, 북한에서는 명태 기름으로 비누를, 명태 눈알로는 사탕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이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및 시진핑 2기 출범 후 한중관계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11월 9일 중국 베이징대 보야 국제호텔에서 자문위원, 현지동포, 한국 유학생 및 중국 학생 등 170여 명과 함께 '한·중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중국지역회의(부회장 이숙순) 주관으로 개최된 포럼은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중 의 대북 전략구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중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이숙순 중국 부회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당연한 과제이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남북이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한다"는 개회사를 전했다. 포럼 1세션은 진찬룡(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과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신중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리팅팅 북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2세션에서는 가오하오롱(高浩榮)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발제에, 장렌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3세션에서는 장샤오밍(張小明) 북경대 교수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중 패널리스트들이 토론에 참여해 청중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의 미래를 평화통일로 만들 주역들 '2017 청소년 통일사진동영상 콘테스트 시상식'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11월 24일 '2017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전국 결선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진행된 '2017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는 국내외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공모에는 총 1,891편의 사진과 동영상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1차 지역 예선대회를 통해 253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14편에 대해 이루어졌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어 대견하다"며 "오늘의 분단된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희망찬 미래로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사를 전했다. 공모전 수상작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정보자료마당 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2강(대전지역회의)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2강(전북 전주시협의회)

대전지역회의(부의장 이미현, 11월 14일)와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고영호, 11월 1일)는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2강을 열어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3강(전남 목포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3강(제주 서귀포시협의회)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조옥희, 11월 23일)와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송재철, 11월 8일)는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3강을 실시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에 관한 강연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충남 보령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이북5도지역회의)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서울 광진구협의회)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김정원, 11월 7일), 이북5도지역회의(부의장 박기정, 11월 14일),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염성철, 11월 22일)는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을 열어 생활 속의 통일운동 통일국민협약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 제1기 경북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식(경북 포항시협의회)



▼ 제1기 경북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식(울산지역회의)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지수옥, 11월 2일)와 울산지역회의(부위원장 김덕순, 11월 16일) '제1기 경북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북 안동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강원 철원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기 의왕시협의회)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이성로, 11월 9일),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오영남, 11월 6일),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봉환, 11월 7일)는 지역주민, 자문위원과 함께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인천 남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북 봉화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북 청송군협의회)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 11월 2일), 경북 봉화군협의회(박도우 회장, 11월 17일),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임기진, 11월 17일)는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해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강연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부산 동래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남 통영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남 공주시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 11월 14일),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조일청, 11월 9일),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임재문, 11월 15일)는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북 옥천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강원 홍천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기 오산시협의회)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박영학, 11월 15일),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고춘석, 11월 23일),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김정수, 11월 13일)는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남 청양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북 영주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북 영양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전남 강호군협의회)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이정우, 11월 17일),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권석창, 11월 17일), 경북 영양군협의회(회장 김상선, 11월 19일), 전남 강호군협의회(회장 위수미, 11월 6일)는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포럼



▲ 제3차 평화통일포럼(전남지역회의)



▲ 제3차 평화통일포럼(울산지역회의)



▲ 제4차 평화통일포럼(서울지역회의)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이완식, 11월 16일)와 울산지역회의(부의장 김덕순, 11월 20일)는 '제3차 평화통일포럼'을 실시했다.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이세웅, 11월 23일)는 '제4차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제29차 평화통일포럼(인천지역회의)



▲ 제37차 평화통일포럼(대전지역회의)



▼ 2017 충북지역 평화통일 심포지엄(충북지역회의)

인천지역회의(부의장 김용복, 11월 8일)는 자문위원, 일반시민, 대학생과 '제29차 평화통일포럼'을 열었고, 대전지역회의(부의장 이미현, 11월 16일)는 '제37차 평화통일포럼'을 진행했다. 충북지역회의(부의장 박문희)는 16일 '2017 충북지역 평화통일 심포지엄' 실시했고,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양학순)는 2일 '제6차 대학생 국제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제6차 대학생 국제통일 세미나(충남 천안시협의회)



▲ 평화통일강연회(부산 동구협의회)



▲ 평화통일강연회(경북 문경시협의회)



▲ 평화통일강연회(충남 아산시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 11월 10일),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박인국, 11월 15일),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한기형, 11월 23일)는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2017 평화통일강연회'를 진행했다.

▼ 평화공감강연회(전북 정읍시협의회)



▲ 평화공감강연회(이북5도지역회의)



▲ 평화공감강연회(이북5도지역회의)

▼ 통일안보강연회(인천 중구협의회)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정태호, 11월 7일)와 이북5도지역회의(부의장 박기정, 11월 2일)는 '2017 평화공감강연회'를 열었고, 인천 중구협의회(회장 노경수)는 11월 7일부터 1박2일간 '북핵위기 시대에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2017 통일안보강연회'를 진행했다.

▼ 오피니언 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경남 창원시협의회)



▲ 오피니언 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인천 동구협의회)
오피니언 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인천 계양구협의회)



인천 동구협의회(회장 백승중, 11월 9일)와 계양구협의회(회장 나대기, 11월 21일),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정병홍, 11월 6일)는 '오피니언 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를 열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실시했다.

▼ 문정인 대통령 특보 초청 평화공감 특별강연회 (경남 거창군협의회)



▲ 오피니언 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 (경기 광주시협의회)

▼ 통일 홍보 강연회(전북 순창군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승열)는 22일 '문정인 대통령 특보 초청 평화공감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김정봉)는 14일 '2017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실시했고,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용기)는 17일 '2017 통일 홍보 강연회'를 진행했다.

▼ 여성통일공감 좌담회(부산 해운대구협의회)



▲ 여성통일공감 좌담회(경북 성주군협의회)

▼ 민주평통 평화통일교육(충남 홍성군협의회)



부산 해운대구협의회(회장 김도성, 11월 10일)와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손정열, 11월 17일)는 탈북민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2017 여성통일공감 좌담회'를 가졌다.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조태원)는 9일 '2017 민주평통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했다.

기타 행사



▲ 우호협력 간담회(부산 기장군협의회&전북 무주군협의회)

▼ 관내 초등학교장 간담회(부산 중구협의회)



▼ 제2차 사회복지분과위원회(경기 안산시협의회)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와 전북 무주군협의회(회장 광동열)는 3일 자매교류 추진을 위한 '우호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 중구협의회(회장 이철진)는 9일 '관내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중)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경애)는 22일 '제2차 사회복지분과위원회'를 열어 2017년 하반기 보고와 2018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통일 워크숍(경남 함양군협의회)



▲ 자매교류 행사(경기 광주시협의회&전북 무주군협의회)

▼ 평화올레 업무협약(제주 서귀포시협의회)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윤학송)는 16일부터 2박3일간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통일 워크숍'을 열었다.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김정봉)와 전북 무주군협의회(회장 곽동열)는 8일 '2017년도 자매교류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송재철)에서는 4일 '2017 제주올레걷기축제' 폐막식에서 협의회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추진한 '평화올레 업무협약'을 맺었다.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전남지역회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대전지역회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경북지역회의)



전남지역회의(부위원장 이완식, 11월 13일), 대전지역회의(부위원장 이미현, 11월 8일), 경북지역회의(부위원장 이상천, 11월 10일)는 1박2일간 '2017년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세종지역회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대구지역회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충남지역회의)

세종지역회의(부위원장 고희순, 11월 15일), 대구지역회의(부위원장 허노목, 11월 8일), 충남지역회의(부위원장 김학민, 11월 10일)는 1박2일간 '2017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경기 광주시협의회)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강원 영월군협의회)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경북지역회의)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김정봉, 11월 7일),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고진국, 11월 14일), 경북지역회의(부위원장 이상천, 11월 21일)는 '2017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인천지역회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충남 금산군협의회)



▲ 강원지역 간부위원장워크숍(강원지역회의)

인천지역회의(부의장 김용복, 11월 17일)와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박금주, 11월 6일)는 '2017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조창진)는 9일부터 1박2일간 '2017 강원지역 간부위원워크숍'을 실시했고, 같은 날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운자)는 '제18기 전북지역 여성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 제18기 전북지역 여성위원 워크숍(전북지역회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대구 남구협의회)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경기 용인시협의회)



▲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구용호, 11월 8일)와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석중섭, 11월 10일)는 '2017 하반기 대구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강은희, 11월 7일)는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전북 부안군협의회)

▼ 경기 북부권 자문위원 연수(경기 포천시협의회)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임기태)는 13일 전북지역 14개 협의회와 '2017년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이중희)는 17일 경기 북부권 협의회와 '2017 경기 북부권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 통일공감 자문위원 연수(경북 상주시협의회)



▲ 경기 북부권 자문위원 연수(경기 고양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민경기)는 21일부터 1박2일간 '2017 통일공감 자문위원 연수'를 열었고,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박호영)는 17일 '2017 경기 북부권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어울림 한마당(경기 안산시협의회)



▲ 하나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통일기원 한마음 축제(경북 구미시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중)는 4일 자문위원, 통일대학총동문회, 북한이탈 주민, 안산주민 등 300여 명과 '2017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같은 날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송재철)는 제주하나센터와 '하나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구민희)는 14일 '통일기원 한마음 축제'를 열어 평양예술단과 한두레마당예술단의 합동공연을 펼쳤고,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박용일)는 15일 '2017 여주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 통일 구현 희망 한마당'을 진행했다.



▲ 여주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구현 희망 한마당(경기 여주시협의회)



▲ 광명시민과 함께하는 평화공간강연 및 지구촌 한가죽 축제 (경기 광명시협의회)



▲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평화로 통일로 세계로(광주지역회의)



▲ 시흥시민 통일한마당(경기 시흥시협의회)



▲ 민주평통 대구지역 한마음 단합대회(대구지역회의)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는 18일 '2017 광명시민과 함께하는 평화공간 강연 및 지구촌 한가죽 축제'를 실시했다. 광주지역회의(부위원장 강혜숙)는 11일 (사)희망래일과 함께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평화로 통일로 세계로'를 개최했고,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김영심)는 21일 600여 명의 시민과 '2017년 시흥시민 통일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지역회의(부위원장 허노목)는 18일 '2017 민주평통 대구지역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 통일문화제 및 평화콘서트(경남 사천시협의회)



▼ 제6회 연수구 주민화합 및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 합창대회 (인천 연수구협의회)



▲ 통일안보 강연회 및 평양예술단 초청공연(강원 속초시협의회)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정자영)는 1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과 '통일문화제 및 평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인천 연수구협의회(회장 서인원)는 25일 '제6회 연수구 주민화합 및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 함창대회'를 열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박종학)는 11월 '통일안보 강연회 및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어 남북 문화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 제9회 어울림 음악회-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서울 노원구협의회)



▲ 통일의 꿈! 통일노래 개사 경연대회 (경남 함양군협의회)

▼ 북한물품전시회 및 통일토크콘서트 (서울 마포구협의회)



▼ 통일 토크콘서트(충북 진천군협의회)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최기수)는 7일 '제9회 어울림 음악회-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윤학송)는 '2017 통일의 꿈! 통일노래 개사 경연대회'를 진행했고,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김성우)는 마포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북한물품전시회 및 통일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충서)는 9일 우석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7 통일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 평화공감 토크콘서트(경기 과천시협의회)

▶ 평화공감 토크콘서트(전남 영광군협의회) ▶
▼ 평화공감 토크콘서트(부산 연제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초청 통일토크 콘서트 (전남 장성군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김준협, 11월 9일), 부산 연제구협의회(회장 서보석, 11월 7일),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박준화, 11월 13일)는 '2017 평화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차장근)는 13일 '2017 여성지도자 초청 통일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 대학생 통일토론회(충북 괴산군협의회)



▼ 대학생 통일세미나(경기 안양시협의회)



▲ 청년학생,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인천 남구협의회)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정현)는 10일 '2017 대학생 통일토론회'를 열었고, 경기 안양시협의회(안대종 회장)는 13일 '대학생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24일 수험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학생,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행사를 실시했다.

▼ 북한음식 만들기, 고향의 맛을 찾아서
(충남 서산시협의회)

▼ 3대 가족 통일골든벨 대회(경북 김천시협의회)



▲ 제3회 북한음식맛보기 - 통일은 밥상에서 부터
(경기 과천시협의회)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배영애)는 2일 김천동신초등학교에서 '2017 3대 가족 통일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김준협)는 4일 '제 3회 북한음식맛보기 - 통일은 밥상에서 부터' 행사를 진행했다.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유기영)는 8일 탈북여성과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음식 만들기, 고향의 맛을 찾아서'를 실시했다.

▼ 평화공감! 통일기원! 북한음식 체험 및 시식회(경기 광명시협의회)



▼ 탈북민과 산업시찰&생태문화탐방
(서울 금천구협의회)



▲ 제16회 통일여성캠프(대구 남구협의회)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는 11일 광명 YMCA와 공동으로 '평화공감! 통일기원! 북한음식 체험 및 시식회'를 개최했다.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김상길)는 20일 관내 탈북민과 '2017년 산업시찰과 생태문화탐방'을 실시했고,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구용호)는 15일 '제16회 통일여성캠프'를 진행했다.

▼ 민주평통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경남 함천군협의회)



▲ 제29회 평화통일염원 음성군민 가족등반대회
(충북 음성군협의회)



▲ 평화통일 기원 등반대회(충북 증평군협의회)

경남 함천군협의회(회장 김기태)는 4일 해인사 소리길 일원에서 '민주평통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를 실시했다. 충북 음성군협의회(회장 이주혁)는 4일 지역주민 1000여 명과 '제29회 평화통일염원 음성군민 가족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이종주, 11월 11일)와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 11월 18일)는 '2017 평화통일 기원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 평화통일 기원 등반대회(충남 예산군협의회)

▼ 제8회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화합의 장(대전 유성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화합 한마당(경북 칠곡군협의회)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조성환)는 20일 '제8회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화합의 장'을 열었다.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정근섭)는 14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 통일안보견학(대전 대덕구협의회)



▲ 통일안보견학(경기 의왕시협의회)



▲ 통일안보견학(제주 제주시협의회)



▲ 통일안보견학(경기 오산시협의회)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김태훈, 11월 2일)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봉환, 11월 14일),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성일승, 11월 3일),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김정수, 11월 15일)는 '2017 통일안보견학'을 실시했다.



▲ 하반기 지역사회 통일준비 현장견학(인천 서구협의회)



▲ 제18기 자문위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평화통일공감 현장견학(대전 동구협의회)



▲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경기 화성시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화)는 8일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과 '2017 하반기 지역사회 통일준비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이희관)는 23일 '제18기 자문위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평화통일공감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김정식)는 24일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해 파주를 다녀왔다.



▲ 제18기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유격지 답사 (전북 순창군협의회)

▼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안보견학(인천 동구협의회)



▲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 DMZ탐방 (경기 평택시협의회)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용기)는 11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 일대로 '제18기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유격지 답사'를 실시했다. 인천 동구협의회(회장 백승중)는 10일부터 2박3일간 지역사회 단체장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이윤하)는 2일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 DMZ탐방'을,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양한)는 17일 '제23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과 통일공원견학을 진행했다.



▲ 통일안보 현장 견학(경기 파주시협의회)

통일미래세대 육성

통일
골든벨



▲ 제5회 도전! 초등학교 나라사랑 통일골든벨 (경북 상주시협의회)



▲ 대구 서구 중학생 통일골든벨 대회(대구 서구협의회)



▲ 민주평통 안산중학생 통일골든벨(경기 안산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민정기)는 8일 초등학교 5~6학년 을 대상으로 '제5회 도전! 초등학교 나라사랑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박성철)는 11일 '대구 서구 중학생 통일골든벨 대회'를 진행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중)는 8일 관내 7개 중학교 (상록중, 송호중, 양지중, 원일중, 이호중, 중앙중, 초지중)를 대상으로 '2017 민주평통 안산중학생 통일골든벨'을 실시했다.



▲ 청소년 통일강연회 및 통일골든벨(부산 기장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이야기 및 통일골든벨(전남 장흥군협의회)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17일 '2017 청소년 통일강연회 및 통일골든벨'을 개최했고, 전남 장흥군협의회(회장 위수미)는 23 여중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 통일이야기 및 통일골든벨'을 진행했다.



▲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실(경북 김천시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교실(경북 경산시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충남 홍성군협의회)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배영애)는 7일 김천생명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실'을 실시했다.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김찬진)는 3일 삼성현중학교에서 '2017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교실'을 진행했다.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조태원, 11월 1일)와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권석창, 11월 17일)는 '2017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개최했다.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경북 영주시협의회)



▲ 3차 청소년 통일교실(충남 예산군협의회)



▲ 4차 청소년 통일교육(경기 하남시협의회)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 11월 21일)는 '3차 청소년 통일교실'을 진행했고,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전주진)는 24일 '4차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전북 임실군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충남 계룡시협의회)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강연회(인천 서구협의회)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태진)는 24일 오수고등학교에서 '2017년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이지웅)는 10일 계룡고등학교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3일 세일고등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기 가평군협의회&충북 충주시협의회&경북 의성군협의회&전북 임실군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장봉익, 11월 17일),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이석기, 11월 8일),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황병운, 11월 16일),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태진, 11월 21일)는 '2017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전북 전주협의회&경북 상주시협의회&경북 김천시협의회&인천 중구협의회)

전북 전주협의회(회장 고영호, 11월 21일),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민정기, 11월 10일),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배영애, 11월 10일), 인천 중구협의회(회장 노경수, 11월 17일)는 '2017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실시했다.

▼ 평화통일, 더하기 한걸음 더(전북 완주군협의회)



▲ 제2회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Smart-기 축제(대구 달성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부산 남구협의회)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임경자)는 3일 '제2회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Smart-기 축제'를 열었다.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종현)는 22일 용호중학교에서 '2017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를 진행했다.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성모)는 17일 상관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더하기 한걸음 더' 수업을 실시했다.

▼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경북 울릉군협의회)



▲ 평화통일 그림그리기 대회(충북 옥천군협의회)



▲ 제6회 통일옹변 나의 주장 발표대회
(충북 증평군협의회)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박영학)는 8일 초등학교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평화통일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이종주)는 22일 형석중학교에서 '제6회 통일옹변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울릉군협의회(회장 양병환)는 5일부터 3박4일간 울릉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를 진행했다.

▼ 통일염원 평화누리 체험교육(경북 영주시협의회)



▲ 청소년 평화통일캠프(제주 제주시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성일승)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경보)는 9일부터 2박3일간 '2017 청소년 평화통일캠프'를 개최했다.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권석창)에서는 11일 관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염원 평화누리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안보현장
견학

▼ 차세대 통일리더 안보역사현장 탐방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초등학생 통일안보 현장견학(충남 부여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학습(충북 충주시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이석기)는 9일 주덕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송재철)는 15일부터 2박3일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리더 안보역사현장 탐방'을 다녀왔다. 충남 부여군협의회(회장 이대형)는 2일 마정초등학교 학생들과 '초등학생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대전 유성구협의회)



▼ 청소년 안보문화체험교육(경기 김포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경북 고령군협의회)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조성환)는 6일부터 1박2일간 '2017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이미연)는 17일부터 1박2일간 관내 15개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 안보문화체험교육'을 진행했다.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정석원)는 1일 새마을 동아리 학생들과 '2017년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ON KOREA 통일한마당(전남지역회의)



▲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대회(경기 용인시협의회)



▼ 평화통일 한마당(부산 사하구협의회)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이완식)는 23일부터 1박2일간 북한이탈주민과 'ON KOREA 통일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석종섭)는 4일 북한이탈주민 120여 명과 함께 '2017년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대회'를 진행했다.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차진규)는 9일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경찰서·구청 관계자들과 '2017 평화통일 한마당'을 개최했다.



▲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경기 수원시협의회)



▼ 탈북민과 함께하는 남북 어울림한마당(경북지역회의)



▼ 새터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토크쇼(경북 예천군협의회)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성열학)는 4일 '2017년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경북지역회의(부의장 이상천)는 13일 북한이탈주민, 여성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탈북민과 함께하는 남북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김석한)는 8일 풍양중학교에서 '새터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토크쇼'를 실시했다.

▼ 우리는 하나 평화공감 문화체험(경기 광명시협의회)



▲ 먼저 온 통일과 소통의 문화공감(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경기 여주시협의회)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강은희)는 11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먼저 온 통일과 소통의 문화공감'을 진행했다. 같은 날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박용일)는 '2017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을 실시해 강원도 강릉을 다녀왔다.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는 3일부터 1박2일간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의 유대 강화를 위해 '우리는 하나 평화공감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 통일 · 문화탐방(경기 화성시협의회)



▲ 힐링캠프(경기 부천시협의회)



▲ 평화통일교육(충남 홍성군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8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조태원)에서는 19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이주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2017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김정식)는 화성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통일 ·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일현장견학 (부산 서구협의회)



▲ 청소년 통일기행(경기 화성시협의회)



▲ 하나 된 우리, 호국 여행 강화도(인천 서구협의회)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김정식)는 17일 화성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2017년 청소년 통일기행'을 실시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11일 세일고등학교에서 '하나 된 우리, 호국 여행 강화도'를,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백창욱)는 8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일현장견학'을 진행했다.



▲ 탈북청소년 멘토링-멘티 가족과의 간담회(충남 예산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대구 수성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건강검진 (충북 괴산군협의회)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는 17일 '탈북청소년 멘토링-멘티 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22일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다.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정현)는 21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어르신을 모시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 평화공감 사랑의 김장나눔(서울 중랑구협의회&인천 서구협의회&경기 가평군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장순열, 11월 10일),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 11월 18일),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장봉익, 11월 10일)는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평화공감 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경기 양평군협의회&충북 진천군협의회&경남 창원시협의회&경기 파주시협의회)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전경복, 11월 1일),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충서, 11월 20일),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정병훈, 11월 22일),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양한, 11월 22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 사랑의 김장나눔(경남 사천시협의회&경기 의왕시협의회&제주 제주시협의회)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정자영, 11월 19일),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봉환, 11월 13일),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성일승, 11월 18일)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문영희, 11월 18일)는 '2017 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지역봉사활동



▲ 장수사진 찍어드리기&이미용 봉사(대전 유성구협의회)



▲ 포항지진 성금모금(대구지역회의)



▲ 사랑의 연탄 나눔(경기 여주시협의회)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조성환)는 15일 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와 함께 유공자 어른신들이 계신 요양원을 방문해 '장수사진 찍어드리기&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의 580여 자문위원은 20일 KBS 포항지진 성금모금에 참여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박용일)는 22일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했다.



▲ 양·한방·안과 무료진료봉사(서울 성북구협의회)



▲ 효심담은 무료급식 봉사(경북 칠곡군협의회)



▲ 봉덕시장 착한가게 가입식(대구 남구협의회)

서울 성북구협의회(회장 이필순)는 11일 요양병원과 함께 성북구민,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500명을 대상으로 양·한방·안과 무료진료봉사를 실시했다.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정근섭)는 17일 150여 명의 어르신에게 '효심담은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구용호)은 22일 '봉덕시장 착한가게 가입식'을 열어 착한가게 가입 현판식과 짜장면 500그릇 나눔을 실시했다.

해외활동

▶▶ 제18기 민주평통 위촉장 전수식(중국 선양협의회) ▶▶



중국 선양협의회(회장 박영원)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민주평통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전수식에는 김남일 연변한인회 및 하얼빈한인회 회장과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 칭다오 청소년 통일 K-POP가요제(중국 칭다오협의회) ▶▶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설규중)는 11월 4일 소상품성 세기미거에서 '2017 칭다오 청소년 통일 K-POP가요제'를 개최했다. 이날 가요제는 산둥성 내 각 학교 학생 19개 팀이 참여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청도국기외국어학교 '통일 뮤지션팀'의 김현욱, 오현선 학생이 차지했다.

북유럽협의회(회장 김희진)는 11월 9일부터 2일간 베를린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2017 유럽 청년 컨퍼런스'를 실시했다.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럽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이경수 주독일 한국대사, 김동업 총영사, 박종범 유럽 부의장, 김희진 북유럽협의회장, 오영호 북유럽협의회 수석부의장, 장국헌 베를린협의회 지회장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첫 강연을 맡은 호르스트 텔치 전 독일 외교안보보좌관은 "과거 유럽 긴장완화 및 독일 통일 추진과정에서 서독 정부는 미국, 소련 등과 지속적인 외교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동서독 간 대화 노력을 전개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과정은 현재 한반도 국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 업무' 대해 설명했다.



▲ 유럽 청년 컨퍼런스(북유럽협의회)



◀ 제18기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출범식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1월 11일 캘리포니아 포스터시티에 있는 크라운호텔에서 18기 자문위원과 내외빈을 대상으로 ‘제18기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덕룡 수석부위원장, 황원균 미주 부위원장, 마이크 혼다 미연방 전 하원의원, 김태연 라잇하우스 대표, 릭성 산타클라라 셰리프 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750만 해외동포사회를 이끌어갈 분들이 바로 미주동포이며 미주동포들은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린업 활동(동남아 서부협의회)

동남아 서부협의회(회장 김정인)는 11월 11일 양곤 깐도지 공원에서 미얀마 지회 위원들과 주니어 평동 학생들, 학생들의 부모님, 미얀마 청년 등과 ‘클린업’ 활동을 실시했다. 클린업 활동은 미얀마를 사랑하는 한인들이 미얀마 공원과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다.



◀ 참전용사회 및 후손회 합동체육대회(미주 중미카리브협의회)

미주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 오병문)는 11월 6일 ‘참전용사회 및 후손회 합동체육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한인회 콜롬비아평동위원들 협찬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500명 이상의 자문위원과 한인 및 지역주민이 함께했다.



제3회 한반도 평화통일 노래 부르기 대회(아세안 중앙아시아협의회 몽골지회) ▲▶

아세안 중앙아시아협의회 몽골지회(회장 조윤경)는 11월 4일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센터에서 600여 명의 동포 및 거주국민을 초청해 '제3회 한반도 평화통일 노래 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총 24개의 몽골팀, 한국팀, 한몽혼합팀들이 참석했으며 6~7세로 이루어진 몽골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수들이 아름다운 콜라보 공연을 선보였다.

함께 나누는 통일의 꿈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회 '2017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신일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17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행사에는 서울지역 25개 협의회 자문위원 400여 명과 탈북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너나 없이 한데 어우러진 참가자들은 이날 함께 웃고 뛰고 즐기며 통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축제의 장'

서울지역회의가 주최하고 서울 여성분과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부 한마음의 장, 2부 한가족의 장, 3부 하나라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권정희 서울 여성분과위원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황인성 사무처장, 이세웅 서울 부의장, 임경하 양천구 협의회장, 이영숙 서울 여성위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전했다.

이세웅 서울 의장은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라고 설명하며 "글로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합된 공동체이며, '어울림 한마당'이야말로 '통일의 꿈'을 나누고 소통하는 글로벌의 장"이라고 말했다.



▲ 이세웅 서울 부의장



▲ 황인성 사무처장

황인성 사무처장은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은 탈북민과 자문위원들이 통일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다 같이 마음과 마음을 잇고 남북 화해와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임경하 양천구협의회 회장은 25개 구 협의회를 대표해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붙잡고 즐겁게 뛰고 소통하는 날이 되자"고 말했고, 이영숙 서울 여성분과위원장은 "탈북민과 여성자문위원이 화합, 소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통일의 문턱을 낮추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증진을 앞당기기 위한 자리를 만들자"는 환영사를 전했다.



▲ 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



▲ 이영숙 서울 여성분과위원장

이어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26명의 여성위원장들은 무대 앞

에서, 자문위원과 탈북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종이비행기를 접어 770여 개의 '통일의 꿈'을 띄웠다. 동시에 민주평통 슬로건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이 적힌 현수막이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우리는 한가족, 한마음입니다

체육관에 모인 자문위원과 탈북민들은 색색깔의 조끼를 맞춰 입었다. 빨간색·노란색 조끼를 입은 13개 협의회(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는 '한가족팀', 파란색·초록색 조끼를 입은 12개 협의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한마음팀'이다.

2부 '한가족의 장'은 팀대항 경기로 진행됐다. 사회자는 먼저 양팀의 단합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함성 대결에서는 '한가족팀'이, 파도타기에서는 '한마음팀'이 각각 점수를 얻었다.



▲ 장막 줄다리기 게임 중인 자문위원들



▲ 통일을 들어라 시합 중인 '한마음팀'

본격적인 경기는 '통일을 들어라' 시합으로 시작됐다. 한가족팀은 동대문구부터 관악구까지, 한마음팀은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공을 굴려 빨리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였는데, 마음이 급해진 한마음팀은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다. 이에 사회자는 "공도 통일을 이루듯 차근차근 굴려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굴러 간다"고 조언했다.

제한시간 내에 물품공을 던져 골대 안에 넣는 '통일의 꿈을 날려라' 게임에서는 '한가족팀'이 더 많은 공을 채워 50점을 얻었다. 이는 '장막 줄다리기' 게임에서도 '한가족팀'이 빛이 속도로 달려들어 밧줄 3개를 먼저 선점했다.



▲ 5인6각 릴레이 게임장



▲ 줄다리기 게임

'5인6각 릴레이' 게임에서는 '한마음팀'이 역전승을 거뒀다.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 발에 고리를 걸고 달리는 시합이었는데, 처음에는 '한가족팀'이 선두로 달리다 뒤로 갈수록 '한마음팀'에 속도가 붙어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를 지켜본 사회자는 킬힐을 신고 뛰어준 여성 탈북민에게 박수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은 '인간 청홍 뒤집기'와 '어린이 나무판 뒤집기' 게임으로 진행됐다. 두 게임 모두 상대 팀의 색깔을 많이 뒤집어야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두 팀 모두에게 상품이 돌아갔다.

감동과 흥을 자아낸 **탈북민 가수 민족음악 공연**

3부 '한가족의 장' 시간에는 여성위원 단체 피구경기와 줄다리기 게임, 문화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이 이어졌다. 먼저 단체 피구경기는 두 조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 A조에서는 키 큰 여성자문위원이, B조에서는 풍채가 큰 여성자문위원이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줄다리기 게임에서는 남녀팀 모두 '한가족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문화공연에서는 치어리더 '퀸'의 댄스 무대와 함께 '평양권설경예술단' 소속 백미경, 김경은 탈북민 가수들이 다채로운 음악공연을 펼쳐 보였다. 현재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은 '우리 아리랑'과 '임진강' 등 애잔한 민족 노래를 불러 감동을 자아내는가 하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로트 메들리를 불러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 치어리더 '퀸'의 댄스 공연



▲ 탈북 가수 김경은

마지막 어울마당 시간에는 26명의 여성위원과 25명의 협의회장들의 손으로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이에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상품을 받아갔는데, 가장 큰 상인 LED TV는 중구협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성 탈북민에게 돌아갔다.

미니인터뷰

“통일은 우리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이흥숙(서울 성동구협의회)

벌써 몇 회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에 참여하다 보면 '통일'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탈북민들을 품어주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주(서울 구로구협의회)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을 생각하며 어울리니 뜻 깊은 시간입니다. 통일은 경제이고 밥입니다. 오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공동 번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차인영(서울 영등포구협의회)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살았는데 이곳에서 탈북민들과 몸으로 부딪히고 즐기다보니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은 ‘우리 아이들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미희(서울 마포구 협의회)

화합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오늘 같은 축제는 화합을 위한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어우러지는 것만으로도 ‘통일’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관문”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한 달간 각 지역회의 및 권역별로 '제18기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제18기 자문위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반도 평화·변영 구상과 남북관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한반도 평화와 변영의 길을 묻다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포럼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 3권역과 경남 1권역에서 개최된 18기 자문위원 연수 현장을 전한다.



우리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는 11월 1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서울 송파구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이세웅 서울 부의장, 남인순, 김성태 국회의원, 안성화 송파구의회 의장 등 내빈과 각 협의회 회장 및 자문위원 240여 명이 함께 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김진돈 송파구협의회 회장이 내빈 소개와 함께 환영사를 전했다. 김진돈 회장은 “말에는 각인의 힘, 동기부여의 힘, 행동을 이끄는 힘이 있다”며 “18기 첫 자문위원 연수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문위원이 되자”고 당부했다.



▲ 이세웅 서울 부의장



▲ 김진돈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이세웅 서울 부의장은 “18기 민주평통의 핵심과제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사를, 남인순, 김성태 국회의원과 안성화 송파구의회 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 평화 통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축사를 전했다.

남북 교류의 작은 성공스토리로 국제적 의견일치 만들기

강연 첫 시간에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협상단계에 서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의 교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송실대 교수와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은 정책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대’와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나희승 연구원은 20세기 실크로드와 2009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국제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한반도는 아시아 태평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남북간 고속철도를 연결할 경우 많은 화물이 부산항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이동하고 중국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등 미주 관광객들이 오가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개성공단과 같은 거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와 기술을 저렴하게 수입,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철 교수는 ‘한국 사회는 지식층, 정당간 대립이 가장 크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국민들이 평화문제를 정당과 의회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간 대화체계를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제기한 ‘통일국민협약’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철 교수와 나희승 연구원



▲ 강연 중인 고유환 교수

이에 몇몇 자문위원이 강연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하자 나희승 연구원은 “남북간 철도 연결은 다자간 합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나진-하산’ 사업처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확산하면 국제적인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북한의 핵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인도나 파키스탄 보다 앞서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1차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동결하도록 이끌고, 잠정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화와 교류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렬 연구원이 북한 핵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질문하는 자문위원

아름다운 시작과 마무리를 위한, 경남 1권역 자문위원 연수

경남 1권역 자문위원 연수는 11월 14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렸다.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기운)가 주관한 행사에는 최광주 경남 부의장,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 동부권역 7개 시·군 협의회 회장, 자문위원 200여 명이 함께 했다.

김기운 창원시협의회장은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하지만 끝을 아름답게 만들고 책임지는 일은 힘들다’는 뜻의 ‘유시유종’을 언급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듣게 돼 감사하다”는 개회사를 전했다.



▲ 최광주 경남 부의장



▲ 김기운 경남 창원시협의회장

최광주 경남 부의장은 “오늘 연수를 통해 분리와 분단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대통합의 통일시대를 만들자”는 격려사를,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시도 민주평통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첫 시간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이 ‘한반도 평화변영 구상과 남북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양무진 부총장은 강의에 앞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는 유사하지만 ‘대북정책’은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남북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을 이행,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2대 비전 아래 압박과 제재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연락체계 복원 등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동체 운영이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연중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2020 통일국민협약 체결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먼저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모두의 올림픽 정신’에 따라 올림픽이 열리는 7일 전부터 경기 후 7일까지 모든 국가가 전쟁을 멈추는 것인데,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은 한미 군사훈련 기관과 겹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2020년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들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장마당을 매개로 개혁개방 의식구조 변화와 남북경협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경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달리해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며 일부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시켜 경제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 강연중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정책포럼을 진행 중인 홍순직 국민대 연구원과 진희관 인제대 교수

이날 플러어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홍 위원은 "통일 후 약 7~10년간은 통일비용이 들지만, 그 이후의 편익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며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경기지역회의(부의장 윤신일, 11월 17일)와 인천지역회의(부의장 김용복, 11월 17일), 경북지역회의(부의장 이상천, 11월 10일),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조창진, 11월 14일), 대전지역회의(부의장 이미현, 11월 8일),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학민, 11월 10일),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11월 13일), 세종지역회의(부의장 고희순, 11월 5일), 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 11월 8일)가 '18기 자문위원 연수'를 각각 개최했다.



▲ 강연을 듣고 있는 자문위원들

"통일은 참여입니다"



박진경(서울 서초구협의회)

평소 궁금했던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알게 돼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국제정세를 이해하게 되니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했습니다.



홍성룡(서울 송파구협의회)

통일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함께 공부하고 방법을 찾다보면 언젠가 운명처럼 맞아들일 통일을 해내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저희 자문위원들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세영(경남 창원시협의회)

지금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관한 내용을 들으니 더 크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자주 참석해 더 많이 배우고 활발히 활동하는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고결(경남 김제시협의회)

통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 참여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자문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참여'입니다!

민주평통과 함께 하고 싶은 통일 활동은? 이벤트 당선작



“북한 서포터즈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김상문 님(sonam***2@naver.com)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북한에 대해 배우고 들을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남북한 사람이 함께 조를 이루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거리나 행사장에서 서포터즈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남북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북한에 대해 생각을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 SNS로 이야기해주세요”

평통 님(jun**5@naver.com)

다른 나라와 외국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관계, 통일에 대한 이야기, 염원 등을 SNS로 알리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외국인 친구를 초대해 임진각이나 판문점 등 통일과 관련된 곳을 견학하며 이야기하고 세계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웹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소리새(skt**6@naver.com)



평화통일 관련 웹드라마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평화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통일 후 좋은 점들은 무엇인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북한음식 경연대회를 열면 어떨까요?”

아스란자(w**74@naver.com)

북한음식 경연대회를 여는 것은 어떨까요? 방송을 보면 맛있는 북한음식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평통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대회를 열어 순위도 가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북한을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영화 ‘코리아’를 재현하는 탈북민 자문위원 탁구대회”

행복한 통일(hs**85@hanmail.net)



영화 ‘코리아’를 모티브로 탈북민과 자문위원이 복식팀을 꾸려 협의회별 탁구대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통, 화합하고 함께 어울리다보면 친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18기 전체회의 대표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비밀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30명을 추첨해
4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민주평통 전체회의 퀴즈!

전 세계가 기다려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 개최됩니다.

이에 제18기 민주평통은 지난 10월 31일 평창올림픽경기장 아이스아레나홀에서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열린 행사의 **대표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30분을 추첨해 4천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힌트보기

행사장 무대 위 가장 큰 네 글자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 참여방법 안내 ※

응모기간 2017년 12월 8일 ~ 2018년 1월 1일까지

응모방법 비밀댓글
(상품수령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경 품 모바일 커피교환권(4천 원 상당) 30명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비밀댓글로 희망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10명을 추첨해
4~6만 원 상당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입장권(1인 1매, 총 10매)을 보내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을 보고 싶어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신 10분을 추첨해
'평창동계올림픽입장권'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안내 ※

응모기간 2017년 12월 8일 ~ 2018년 12월 25일까지

응모방법 비밀댓글
(상품수령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경 품 평창동계올림픽
실내외 경기 입장권 1매(4~6만 원 상당) / 총 10명



축하합니다!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평통과 함께하고 싶은 통일활동은?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김상문	010-***16-9285
평통	010-***69-9109
소리새	010-***21-0318
아스란자	010-***71-5772
행복한 통일	010-***62-0795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깜숙	kamsoo***15@hanmail.net
하향	mhj***d@naver.com
하하	h***45@naver.com
곽여시	djdh***@naver.com
열무아빠	cra***lash@naver.com
푸메	hyu***ggo@naver.com
두리몽실	llov***25@naver.com
인해	jsp***6@hanmail.net
겨울	han***jh@naver.com

깜치	jy70***@naver.com
안기현	kee***@naver.com
코코샤넬	skt***@naver.com
수진	gizm***79@naver.com
미리내	leh***3@hanmail.net
시나브로	duk***74@korea.kr
연원맘	nm***8@naver.com
초보자	yun***05@hanmail.net
나르니	nare***002@hanmail.net
늘솔	cbj***0@naver.com
보현	perhaps00@hanmail.net
김양남	kyn25@naver.com
김중원	jw21***62@naver.com
은덕구	eun***2001@hanmail.net
호갱갑	windor***86@naver.com
김희용	khy***5@hanmail.net
화이트	wjsw***d@hanmail.net
다운	mo***it1@hanmail.net
다사랑	naya***225@yahoo.co.kr
엘리사	nicky***n@naver.com
강짱	kajeh***@naver.com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010-**25-9899
 010-**09-1778
 010-**86-5305
 010-**42-2073
 010-**03-4760
 010-**09-3998
 010-**62-0795
 010-**97-6867

휴대폰 번호

010-**60-0350
 010-**17-3550
 010-**34-5467
 010-**20-3974
 010-**30-2995
 010-**60-9653
 010-**29-1124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